

칠곡농어촌공사, 김천시 남면과 남북저수지서 환경 정화

김철희 기자 chk1500@hankooki.com



남북저수지 환경정화 참여자들이 행사 후 펼침막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사진=칠곡농어촌공사 제공

[칠곡(경북)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14일 김천시 남면과 함께 남면 월명리 일원에서 남북저수지 주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수면의 부유물을 수거했다.

이날 행사에는 칠곡지사 직원, 김천시 남면 직원과 새마을부녀회 인근 주민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.

농어촌공사는 현재 연 2회 환경정화 행사를 통해 저수지 주변 쓰레기와 수면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다.

이날 남북저수지에서는 광역제초기 및 굴삭기 장비 등을 동원해 제방 풀베기, 대형 이물질 수거작업을 했다.

입력시간 : 2021/10/14 17:40:13

Copyright © 한국미디어네트워크 All rights reserved.